

태풍 태풍 하더니 허풍만 친 기상청 우리나라로 태풍 못 불어온다

19호 태풍 솔릭이 오기 직전 역곡 남부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 김영민 승사(본부제단)는 소형 마이크를 “태풍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조희성 구세주께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태풍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도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쳤다. 강한 바람과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는 가운데 김 승사는 배짱 좋게 못 불어온다고 외친 것이다. 평택제단 김광령 승사 또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태풍 예보 보드를 포스팅하면서 태풍을 구세주께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많은 승리제단 신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태풍이 오지 못한다고 외쳤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태풍을 막아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성 구세주는 38년전부터 태풍을 막고 있다.

또 태풍 막은 조희성 구세주

19호 태풍 솔릭이 거의 피해 없이 지나가버렸다. 기상청과 매스컴으로부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를 믿었던 국민들은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많은 피해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폭염을 몰아내고 비를 뿌려주어 효자 태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요란스럽게 떠들던 예보와 달리 일부 네티즌들은 기상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또 드러내고 있다. 강릉에 거주하는 윤갑수 승사는 “이번 태풍 전혀 피해 없었다. 조금 비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며 태풍의 길목으로 예상되었던 강릉에 별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



19호 태풍 솔릭이 허풍으로 끝나고 만 귀적. 태풍의 길목에 있던 사람들조차 거의 태풍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점점 구세주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증거이다.

주에 거주하는 우덕환 승사도 “청주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어왔는지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마산에 사는 안병관 승사는 “이번 태풍은 효자 태풍이에요.”라고 정의했다.

사실 일기예보, 특히 태풍과 장마에 관한 예보는 기상청 예보가 자주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당신을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 전략으로 초능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그것이 장마와 태풍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상청은 장마가 온다고 예보하면 비가 안 오고,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며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였겠다.

왜 태풍 못 불어오게 하는가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솔릭이 왜 갑자기 효자 태풍이 되었나 그 이유를 알아보자. 소형 태풍으로 시작되었던 솔릭은 점점 강한 중형 태풍

으로 발달하더니 시속 2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향했다. 기상청은 이를 보고 태풍이 태안반도에 상륙한 후 수도권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런데 솔릭은 제주도 앞에서 갑자기 4km로 속도가 줄어든 후 느리게 이동하였다.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혹자들은 이것을 한라산이 가로막아서 속도가 줄고 태풍의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태풍의 중심은 제주도에서 수백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이 태풍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 바다 한 가운데서, 높은 산도 없고 육지도 없는 바다에서 태풍이 속도를 5분지 일로 줄인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후지와라 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 왜 태풍은 속력을 줄였는가.

초능력이라는 게 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 조희성 구세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므로 부득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세주를 믿게끔 전략을 짰는데 바로 그 전략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 것이다. 매년 수십 개 발생하는 태풍 중 두세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일단 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오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 더욱이 태풍은 풍년을 기대하는 농심과 국민들의 마음을 쏠리게 한다. 구세주는 당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이 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구세주는 반드시 태풍이 이 나라에 불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구세주 모르는 무지한 대한국민들

19호 태풍 솔릭은 예보 때마다 강한 중형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만일 불어오면 엄청난 물폭탄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막상 불어왔지만 거의 태풍이 불어온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 인명피해 또한 매우 작아 1명이 실종되었다고 하며 재산피해 또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무력한 인간들에게 구세주 조희성님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태풍을 막거나 소멸시키거나 또는 효자태풍으로 만들어버리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빨리 전세계 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1>
“안식일의 주인공은 하나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6천년 동안 마귀와 더불어 싸우다가 마귀를 이기고 7천 년대에 와서는 영원토록 안식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고 이레 되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고 안식교회

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안식일의 정의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귀를 소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때부터가 안식일이 되는 것이며, 안식일은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안식일이므로 안식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이다.*

사건다시보기 영생교를 없애버리겠다는 이 모 검사

서울지검 강력부 이 모 검사. 그는 영생교 승리제단 조희성 총재를 구속한 후 법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영생교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일개 검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인 우리나라, 그리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뒤에 엄청난 권력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변호하지 못하겠다는 변호사들

다음은 고 김삼욱 전 승리제단 회장의 증언이다. “1994년 조희성 총재님이 구속된 후 이 모 검사가 나와 이재만(전 국회의원)씨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조희성 피고는 절대로 못나간다. 그리고 영생교는 1년이 걸리면 2년이 걸리면 내가 꼭 없애고야 한다. 그후 선임된 변호인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한사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권력 중심에 있는 기독교의 핵심 인사가 조희성님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엄청난 소문이 있었다. 김삼욱, 조희경, 이재만, 그리고 육군대령 출신인 박종대 등이 조재석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조재석 변호사와 세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이미 쌍방간에 양해가 되어 있던 때이다.”

청와대 지시로 영생교주 처벌한 정황들

그렇게 하여 알아본 결과 구체적인 말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검찰청장, 법무부장관, 안기부장 이상의 선에 손이 닿으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나왔다. 심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말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예측한 대로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영생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엄청난 권력의 지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승리진경>에서 발췌

위의 정황을 볼 때 이 모 검사 뒤에는 청와대 핵심권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또한 소망교회 집사였었다.

2000년 8.15 특사로 출옥하신 조희성님은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교하셨다. 검찰에서 신문 당시 검사가 청와대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검사가 살인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현금사기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조희성님을 죽이려는 기성종교의 음모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청와대는 종교사정(查正)이라는 허울을 쓰고 영생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일전에 방송에서, 젊은 시절에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각 분야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 주위 사람이 잘 되어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라도 받으니까 저절로 주위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그래’ 하고 재미있게 느꼈던 적이 있다.

도의 세계, 마음을 닦는 이 세계에서도 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자리에서 군림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난 사람이라는 의식, 내가 최고라는 의식이 마음 밑바탕을 자리 잡고 있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수십 년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세계인데 너와 내가 없고 모두

가 평등한 하나님, 잘나고 못나고 없고 크고 작음이 없는 정정하고 기쁨만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많은 이가 지식으로 알고는 있으나 마음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나 자신부터 때때로 내 마음을 되 돌아본다.

이런 세계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상인가, 항상 내가 일하고 나서 많은 이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 하나 일어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너와 내가 없는 세계, 절대 세계에서는 내가 한 일도 상대가 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나는

잘 협조하고 있는지, 너와 나를 구분지어 무조건 반대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절대 세계 속에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형제의 잘한 일에 웃음과 호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때때로 마음을 점검해 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습관처럼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겸손함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인가? 나만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하나님이 안에서 소신껏 내가 함이 없이 일하고, 잘되나 못되나 담당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윤금옥 승사

- 개천절 온백성초청 친지개벽·발본색원 강연회 -

홍익대통령 구세주 정도령(正道壽) 특별강연

강연 1. Truth King_심승진인 정도령 특강_正道 민생
* 불사영생/평화통일/경제번영의 정도(正道)를 논하다

“절대 병들고 죽지 말라! 절대 다루고 싸우지 말라! 절대 가난하지 말라!”

인류역사를 죽음과 분쟁과 고통의 세월호로 만든 원흉은 선악과(마귀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자존심]. ‘나’를 거슬러 ‘絕對無我 克己復禮’를 이룬 모든 백성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영원한 청년 善男善女, 불사영생·평화통일·경제번영 대한민국의 창조자들이다』

강연 2. 발본색원_‘홍익인간 인내천’의 부리와 열매
* 국조 단군의 혈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논하다

- 혈통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
- 삼국시대의 고구려 수막새에서 올드네게브 문자를 발견하다

나무에 뿌리가, 물에 수원(水源)이 있듯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임금이 있어야 한다.

강연 일시: 2018년 9월 29일 (토) 오후 3시, 강연 장소: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Tel: 032) 343-9981~2
032) 349-7469, 032) 343-8666